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감추인 보배 성경: 시편 12편

Tag:

1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2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함이어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
으로 말하는도다

3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4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오 함이로다

5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놀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6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어 흙 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 같
도다

7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8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도다 (시12:1-8)

시편 12편은 다윗의 시다.

그런데 시라기 보다는 세태한탄 같다.

세월이 흘러도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들은 모두 비슷한가 보
다. 지금으로부터 삼천년도 더 먼 다윗 시대에도 그랬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다.

25년 전 1998년 ‘세태한탄’이란 제목으로 장신대 나채운 교수가 쓴
시가 있다.

요즘의 세상 꼴이 어찌면 이러한가

...

정치란 무엇인가 최고의 부정 비리
정치인 누구인가 최고의 협잡배들
순진한 국민들이야 세금 내는 기계들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인 낙선 위해
안기부 책임자가 북한과 비밀 접촉
수십억 돈도 졌다니 기절하고 놀랄 일

...

사법부 판사라면 준법의 최후보루
정의를 구현함에 생명도 바칠 것을
돈 앞에 체면도 팽개 그렇게도 못 냈나

...

교수를 채용함에 뒷거래 수 천 만원

...

공부를 많이 해서 판·검사 교수 되어
남 달리 출세했다 존경을 받았는데
돈 앞엔 다 넘어지니 부끄럽다 그 이름...

다윗은 한때 잘 나가던 슈퍼스타. 사울 왕의 사위로 장래에는 왕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큰 자.

그러나 사울왕의 시기로 내어 쫓기는 신세가 되고, 10여년을 이리저리 도망다니며 살았다.

그러자 세상은 불확실성이 커졌기에, 사람들은 사울을 따를 것인가 다윗을 따를 것인가 아리송했다.

수 많은 다윗의 사람들이 사울왕의 눈치를 보면서 사울왕에게 거짓 충성을 맹세하게 되었으리라.

그들은 머리를 잘 굴려야 살아 남는다고 생각했으리라.

거짓말도 서슴없이 했을 것이고, 의리에 앞서서 자신의 이익을 먼저

챙겨야 했으리라. 다윗도 이해는 했겠지만, 배신감 때문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으리라.

아내 미갈과도 일찌감치 관계가 소원해진 것 같다. 나중에 왕이 되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녀를 다시 데려오기는 했지만, 아마도 초기 떠돌이 시절에 자신을 따라 나서주지 않은 미갈에게 서운함이 있었을지 모른다.

1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2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함이어 아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린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 땅에 경건한 자가 끊어졌습니다. 경건했었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경외심이 사라진 자에게 남겨진 것은 자신이 노략하고 싶은 이익을 위해 의리는 헌신 짝처럼 저버리는 양아치들만 남았습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아마 자기도 이렇게 교묘하게 둘러대는 기술이 자신에게 있었는지 새삼 놀랄 겁니다.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순식간에 왕이 듣기에 좋은 말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처럼 말을 지어냅니다.

4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많은 사람들이 정권은 판을 잘 짜는 사람이 차지한다고 믿고 있다. 그래서 내가 누구와 손을 잡을 것인지, 적을 무너뜨릴 계략이 무엇인지, 누구를 중심으로 뭉치는지, 어떤 거짓말이 먹히는지, 사람들은 어떤 말에 반응하면서 여론으로 대세를 균형을 잡을 수 있는지를 연구한다. 요즘에는 댓글을 통해서 이런 대세를 만들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이 있

다. 과거에는 복풍을 이용해서 대세를 굳히기도 했다. 거기에 맞붙을 놓는 사람들은 그럴듯한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교묘하게 뉴스를 만들어 대세를 굳혔다.

15대 대통령 선거 때 이회창 후보의 아들들이 병역비리가 있다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 폭로한 김대업, 설훈 등의 거짓말이 ‘오마이뉴스’를 통해서 알려지고 그 거짓말이 즉효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었다.(39만여 표차로. 나중에 거짓말이 들어나 두 사람은 실형을 살았다. 설훈은 노무현 정부 때 사면됨)

16대 대통령 선거 때도 같은 거짓말 재탕으로 두 번째 도전한 이회창씨는 고배를 마셨다.(57만표차)

17-18대 선거는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싸움이였다. 서로 비리를 파헤치며 싸우더니 결국 서로 고발했던 그 비리로 두 사람 모두 감옥에 가서 고생했다.

19대 대통령 선거는 두루킹 사건으로 떠들썩 했다. 댓글조작과 세월호 사건을 여론에 이용하면서 국민들을 선동한 탓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이렇듯 요즘의 세태 또한 과거와 별 다를 것이 없다. 거짓말이라도 사람들이 믿고 싶은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승리한다.

그래서 한동훈장관 술자리 거짓말로 더 탐사는 20억 폐돈을 벌었고, 10억 손배소 중이다. 그래서 돈이 되는 거짓말을 못 끊고 있다.

김남국은 무조건 들이대는 수법으로 가장 많은 후원금을 받은 의원이 되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이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세태를 한탄한 것이 된다.

4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과거에는 칼로 상대방을 찌르고 왕이 되었지만, 요즘은 거짓말이 칼이 되었다. 과거 광우병(뽕) 사태, 천안함 사건, 5.18 민주화 운동, 세

월호 사고(참사?) 등 모든 것에 거짓말을 덧씌워 정권을 흔드는 도구로 사용했다.

이렇게 거짓말의 위력을 여러 차례 맛 본 자들은 이제는 버젓이 거짓말을 이용해 먹는다.

거짓말인지 뻔히 알면서도 그것이 정치적으로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얼굴색도 변하지 않은 채 당당하게 대중 앞에 선다. (조국과 그 딸도 그렇다.) (이재명 관련자들이 벌써 4명이나 자살 -당-했다.)

그야말로 시편 12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드디어 5절부터 여호와께서 등장하신다.

거짓말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 분연히 일어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다윗을 중심으로 억울하게 좌절감을 맛본 사람들이 동병상련의 아픔을 안고 다윗과 함께 고생하기 위해서 다윗 주변에 모여들었다.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도 결코 거짓말이나, 협잡, 선동 등을 통해서 사태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힘을 다해서 진실만을 선택했다. 비록 죽을 위기에서 미친놈인체 연기하기도 했지만, 결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을 행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전쟁 기술이 뛰어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변두리에서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을 중심으로 안보를 책임져 주고 몇 푼씩 세금을 받으면서 연명하고 있었다.

5 여호와와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놀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전지대가 곧 사울왕의 군사력이 미치지 못하는 이스라엘 남쪽의 변두리를 말한다. 다윗은 하는 수 없이 사울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초라한 곳에서, 그렇지만 안전한 곳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신이 정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6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며 흠 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 같도다

6절은 다윗의 신앙고백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진실하고, 순결하며, 거짓이 없다.

마치 흠 도가니에 일곱 번이나 단련한 은과 같이 불순물이 완전히 제거된 순결한 말씀이다. (일곱 번은 완전함을 뜻함)

그러나 다윗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지는 못한다.

우리는 연약하며 부족하며 하루하루 실수가 잦다.

유혹도 많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는 모른 척 거짓말도 한다.

여호와의 말씀과는 달리 우리는 아직 일곱 번까지는 도가니에 단련되지 못한 처지이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다.

뻔뻔하지만 앎다면 우리는 진실로 회개할 수 있으며,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내리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순결함을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이다.

7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지켜 주소서;표준 새번역)

거짓말의 홍수 속에서 진실을 지키려는 자들이 누군가? 그들이 곧 감추인 보배들이다.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진실인지를 가려내기도 힘들다. **그때는 나만은 거짓을 입 밖에 내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하는 자만 진실한 자이다.** 감추어져 있는 진실한 자들이 보배다.

누가 감추인 보배들인가? 사람들은 모르지만, 오직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 주신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원을 약속해 주신다.

한번 거짓말의 유혹에 빠지면 빠져 나오기 힘들고, 변명의 달콤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진실이 아닌 내 맘대로 믿고 싶은 거짓말에 취하게 된다. 거짓말은 마약이 되고 나는 거기에 중독이 되고, 결국에는 거짓말의 노예가 되고, 거짓말 하는 자에게 헌금하는 자가 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순결하다는 것을 믿는 것이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감추인 보배를 찾으신다.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영원을 약속해 주신다.

8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도다 (시12:1-8)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우리는 감추인 보배와 같은 자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탄식소리를 듣고 일어나신다.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는 것은 이제 무언가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땅에 좋은 일을 행하신다는 뜻이다. 가난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애쓰며, 자신의 허물을 예수의 피로 씻어내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아도 자신은 결코 그 무리들 중에 끼이지 않음을 선택하는 자들이 곧 감추인 보배들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이다.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일어서신다. 그들을 돌보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아멘.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연합하여 이리저리 휘둘리며 살아갑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용서해 주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소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 진리를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거짓에 빠진 자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이 더 진실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도 영원을 약속해 주소서.

<찬양예배>

제목 : 리더의 삶 성경: 히브리서 12장 1-17절

Tag:

1 이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2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4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5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이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6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7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8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9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10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11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12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13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14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15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16 음행하는 자와 혹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자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17 너희가 이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히12:1-17)

1.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신중하라, 화가 있을 때는 삼가라.

-징계에 게으르지 마라.

-수술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니, 철저히 준비하고 부작용을 대비하라.

-징계의 대상자를 면밀히 살피고, 그의 의견도 들으라. 그러나 거짓이나 핑계를 용납하지 말라.

2.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12)

-징계 당사자가 피곤하고 연약하기 때문임을 명심하라.

-그가 아직 어리기 때문이다. 나이와 상관 없이.

-그가 코치를 받고 건강하도록 도우라.

3. 사람마다 형편과 생각이 다르다.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는 말라.

-믿음이 강한자는 모두 먹지만, 약한자는 채소만 먹는다.

1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롬 14:1)

2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롬14:2)

4. 친절함과 선함을 끝까지 잃지 마라